

일주문

옥관문화훈장 수훈
前 수덕사 주지 응산 스님은 10월 29일 정부가 수여하는 '2014 문화훈장 수훈식'에서 옥관문화훈장을 받았다.

불교지비나눔대축제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보경 스님은 11월 13~14일 국립중앙극장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자비나눔대축제를 개최한다.

2014 창릉문화상 수상
희곡작가 장창호 씨는 11월 1일 뮤지컬 극본집 <장창호 삼국유사>로 제9회 창릉문화상을 수상했다.

<인사> 태고종 총무부장에 대각 스님
한국불교신문사장에 법담 스님 임명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은 10월 31일 총무부장에 대각 스님(서울 원각사 주지)을, 한국불교신문사 사장에 법담 스님(제주 백련사 주지)을 각각 임명했다.

대각 스님은 대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1985년 사미계를, 2002년 백우 스님을 법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총무원 총무위원과 총책기획위원회 실장, 기획부장, 보수승가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중일교육문화교류협회 이사장과 해화경찰서 경승실장 등을 맡고 있다.

불교학연구지원사업회, 수상자 선정

김수연, 윤영호, 배경아
사)불교학연구지원사업회(이사장 법상)가 진행하는 제 11회 불교소장학자지원사업에서 박사논문 지원 부문 수상자로 김수연 이화여대 사학연구소 연구원과 윤영호 한국종교평화연구원장이, 번역 부문은 배경아 인도고전철학연구회 연구원이 각각 선정됐다.

김수연 연구원의 박사학위 논문 '고려시대 밀교사 연구'는 고려시대 밀교를 역사학 관점에서 접근한 논문이다. 윤영호 원장의 '설일체유부의 극미설 연구'는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충실히 반영해 가며 설일체유부 극미론의 전모를 복원했다.

“삶의 질 바꾸는 불교의학 정립”

동국대서 불교의료법 연구 나선
정인원 불교의학연구소 초대소장



MBSR·이완요법의 한국적 개발
불교경전 내 의학이론 탐구
심성프로그램 이론 근거 제시

“몸과 마음의 변화에 도움을 주는 명상과 참선의 의생명공학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 사회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0월 24일 개소한 불교의학연구소의 초대 소장 정인원 동국대 정신의학과 교수는 “불교의학연구소는 불교의학의 새로운 개념 정립과 함께 실용적인 치료법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다양한 전법 활동의 치유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먼저 불교의학연구소는 현대의학의 발전에도 규명하지 못한 다양한 병에 대한 연구를 새로운 각도에서 진행한다. 고혈압, 스트레스 증후군, 만성질환으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불교적 치유방법 모색과 함께 노령화사회에서의 건강 증진에 대한 대책 등 현대사회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불교의 가르침에서 찾는다.

정 교수는 “불교는 종교이긴 하지만 삶의 철학이자 생활방식이기도 하다. 건강과 관련된 모든 것은 바로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비롯되기에 이런 철학, 생활방식을 들여다 보면 해답이 나온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어 “삶을 하나 하나를 긍정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바로 불교의 지혜”라고 말했다.

불교의학연구소의 연구방향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불교경전에 있는 의학적 내용을 면밀히 살피고 이를 학문으로 정립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기존의 여러 의학이론에 대해 불교적 해석을 시도하는 것이다.

정 교수는 “죽음, 삶, 고통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바로 의학이론”이라며 “이는 불교교리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연구 과제에는 명상, 템플스테이 등이 현대인들에게 어떤 경험적 효과를 내고, 이를 이론화 시키는 것을 포함한다”며 “이런 이론화 작업을 통해 현재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불교의 다양한 심성프로그램에도 객관성을 부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동국대 의료원의 불교의학연구소 개소는 현재 동국대 일산병원 일대에 들어선 바이오메디캠퍼스의 한의대와 약대, 자연대학들과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정 교수는 “향후 협력 프로젝트 등을 통해 응용분야로도 연구분야를 넓힐 것”이라며 “불교계 산후조리원에 사용가능한 프로그램,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명상원을 운영하는 세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영역 확장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또 “이런 이론,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불교계 의료복지기관에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라며 “길게는 불교의료복지재단을 꾸리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 이어 열린 기념세미나에서는 정인원 불교의학연구소장의 ‘불교의학: 현대의학과 불교의 해후’, 장원갑 영남대 교수의 ‘명상수행에 따른 마음과 뇌의 변화’, 정성훈 을지대 의대 교수의 ‘시대적으로 바라본 마음과 몸의 수사학’ 등이 발표됐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근대불교 연구의 자양분 되길”

2014불교평론 학술상
수상자 김광식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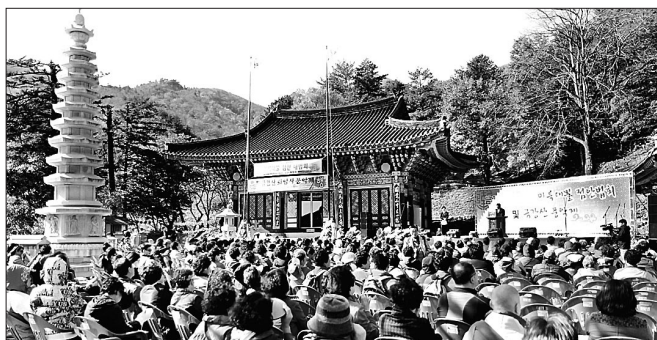
<불교평론>이 한해 동안 출간된 불교저서를 대상으로 수여하는 '2014 불교평론 학술상'에 김광식 동국대 특임교수의 <불교근대화의 이상과 현실>(도서출판 선인)이 선정됐다.

김광식 교수는 “1993년 독립기념관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천도교, 기독교, 천주교의 연구 성과는 풍부함에 비해 불교의 내용은 빈약하기 짝이 없음을 알게 되고 근대불교의 연구에 나서게 됐다”며 “1993년, 임혜봉의 <친일불교론>에서 불교의 친일을 알게 됐지만 친일의 반대편에서 독립운동에 헌신한 스님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항일불교, 민족불교를 조명하겠다는 연구방향을 세웠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후 불교 근대화의 개념을 자연스럽게 정립하게 됐다”며 “‘불교근대화’는 근대불교를 설명하는 관점이며 동시에 근대불교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불교근대화의 이상과 현실>에 학술상 수상이 주어짐을 보며 추후에도 근대불교 연구의 개척이라는 화두를 결코 놓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상식은 12월 18일 불교평론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노덕현 기자

화암사, 미륵대불 점안법회 및 음악회



고성 화암사(주지 응산)는 10월 25일 남북평화 통일과 국민안을 기원하기 위해 조성한 미륵대불 점안법회와 금강산 풍악제를 봉행했다.

화암사 미륵대불 점안법회는 속초 신홍사 주지 우송 스님과 화암사 주지 응산 스님 등 스님들과 김미영 강원도 경제부지사, 윤승근 고성군수, 이병선 속초시장 등 2000여 명이 동참했다.

우송 스님은 “미륵부처님은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중생의 희망”이라며 “수행과 참회를 통해 구경열반을 성취해야겠다는 서원을 세우자”고 당부했다.

한편, 화암사 미륵대불은 높이 15미터로 조성됐으며 후불 미륵전에는 폭 45미터, 높이 7미터 규모의 1080분의 미륵불이 부조로 조각돼 봉안됐다. 점안법회에 이어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성군 주민을 위한 화합 한마당 잔치와 금강산 풍악제가 열렸다.

김주익 기자

월드머시코리아에 5천만원 기부



서울 봉은사(주지 원학)는 10월 26일 봉은사 법왕루에서 월드머시코리아에 베트남 푸엔성 화미동초등학교 교사신축을 위한 후원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기금은 봉은사 신도회에서 1220주년 개산대제 기간에 진행된 ‘제4회 따뜻한 세상을 위한 행복 나눔 바자회’를 통해 모은 행복나눔 기금이다.

노덕현 기자

경찰청 신임 경승단 위촉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10월 30일 경찰청 내 제2회의실에서 경찰청 경승 위촉식을 가졌다.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이 경승실장으로, 육천암 주지 정경 스님이 경승으로 위촉됐다. 포교원 포교부장 송목 스님과 자재암 주지 해만 스님은 재임 됐다. 이날 위촉식에는 경찰전법단 사무국장 정범 스님, 전담경승 진상 스님, 조계사 원주 덕업 스님과 강신명 경찰청장을 비롯해 허영범 보안국장 등 간부들이 참석했다.

이 나은 기자

고운사, 아동청소년문화예술제



의성 고운사는 10월 25일 경내에서 제7회 천년슬향 아동청소년문화예술제를 개최했다. 이날 예술제는 백일장 사생대회 음악경연 등 3개 분야에 걸쳐 개최됐다. 입상자에게는 경북도교육감상 등 부문별로 18개의 상이 수여됐다.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 매년마다 사찰문화예술제를 열고 있다. 앞으로도 꿈과 희망을 전해주는 지역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인사의 말을 전했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禪農教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도모집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1통 ◇ 반명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증명서

- ◇ 승려증 (법사증·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총본산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신덕리 209-8번지 광덕사
○ 총무원 : 전화 041)584-4153 / Mobile 010)6478-1569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작금 세계불교문화가 수직적 종신제(교황적 이념)에 집착되어 불교문화의 수평적(평등이념) 지위를 잃어 가는 말세적 불교 문화의 분열상을 보면서 불교 국가간 종단간 소통과 교류 및 연대만이 더 큰 불교세계를 이루고 소멸되어가는 불교 문화의 재 창달의 길이라 여겨 세계불교 연합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군소 종단의 적극 동참을 희망 합니다)

문의 041)584-4153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1번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조성 (부산 태종사 조실)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